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4.01~26.04.30)

### □ 스몰 컨세션 형성 추진 사업에 의한 전문가 파견을 실시하는 지자체 선정 [4/1]

- 일본 국토교통성은 민관 협력을 통해 유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스몰 컨세션 (Small Concession) 형성 추진사업'의 대상 지자체 9곳을 최종 선정함.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방치된 고택, 폐교, 역사 자료관 등 공적 자산에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 하고 주변 에어리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됨.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속에서 유휴 자산을 단순 유지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 이번 지원의 주요 배경임
  - 전문가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개 프로젝트는 건축물 특성에 따라 고택, 학교, 복합 시설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고택·역사적 건축물 활용형으로는 토치기현 카미노카와정(국가등록 유형문화재 오이누마 가 주택 이활용 검토 조사), 시즈오카현 이와타시의 '모두가 주역인 마을 만들기' 실현을 위한 구 츠쿠라 가 이활용 검토 조사), 교토부 교토시(교토 마치야 활용을 통한 사회 과제 해결 수법 검토 조사), 나라현 이카루가정(야스다 가 주택 및 카스가고분 보전·활용 검토 조사의 4건이 선정됨. △ 학교 시설 활용형으로는 시즈오카현 이와타시(지역 커뮤니티 거점 기능을 보유한 구 이와타 초등학교 이활용 검토 조사), 야마구치현 우베시(우베니시 고등학교 부지 이활용 검토 조사)의 2건이 선정됨. △ 복수시설 및 복합 활용형으로는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중요문화재 구 히로사키 가이코샤 및 구 후지타 가 주택의 일체적 활용 스몰 컨세션 형성검토조사),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미마사카 역사 자료관 이활용 검토 조사), 토쿠시마현 미나미정(지역 경제 순환 구축을 위한 성곽 및 교류 거점 일체형 이활용 검토 조사)의 3건이 선정됨
  - 정부는 오는 4월 중순부터 각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할 외부 전문가 공모를 시작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임. 단순히 개별 시설을 수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와 민간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러한 소규모 민관 협력 모델의 확산이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스몰 컨세션은 지자체가 소유한 소규모 유휴 공공시설(공민관, 폐교, 역사적 건축물 등)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부여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금을 통해 시설을 재생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 모델임. 단순히 시설을 임대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사업자가 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개보수 및 지역 서비스 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은 새로운 서비스(카페,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를 향유하며, 지역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민관 협력(PPP/PFI)'의 실천적 형태임

### □ 도로 점검지원기술 성능 카탈로그를 확충 [4/1]

-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로 인프라 점검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 점검지원기술 성능 카탈로그'를 대폭 확충하고 54건의 신규 기술을 추가함

- 이번 조치는 교량, 터널, 도로 토공, 포장 및 도로 순찰 분야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점검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행됨. 노후화된 인프라 관리의 시급성과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성능 검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 배경임
- 확충된 카탈로그에는 영상 측정, 비파괴 검사,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이 망라되어 총 게재 기술 수가 407건으로 늘어남. 특히 2026년 4월 1일 자로 추가된 기술들은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직접 성능을 검증한 결과물로, 발주처와 점검 업체가 기술의 신뢰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됨. 2022년 교량과 터널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도로 순찰 항목에 이르기까지 점검 지원 기술 활용이 원칙화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카탈로그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현장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점검 데이터의 정밀도를 확보할 방침임. 또한 신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상시 제공할 계획임.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점검 체계 전환이 도로 인프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성능 카탈로그는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성이 정한 표준 항목에 따라 각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록함. 초기에는 교량과 터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포장, 토공(비탈면 등), 도로 순찰 등으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미지 측정 기술(드론 촬영 등), 비파괴 검사 기술, 계측·모니터링 기술, 데이터 수집 및 통신 기술 등 7개 이상의 카테고리도 세분화되어 있음. 각 기술별로 작동 원리, 적용 조건, 측정 오차, 작업 효율성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관리자가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맨션에서 외부관리자 방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대해 [4/1]

- 일본 국토교통성은 맨션 관리업자가 단지의 관리자로 참여하는 '외부관리자 방식'의 적절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하여 4월 1일 공표함. 이번 개정은 맨션 관리 적정화법의 시행에 맞춰 관리업자가 관리인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의 표준안과 관리 규약을 정비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행됨. 고령화로 인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 참여 감소와 관리 미비 단지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외부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 배경임
-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기존 및 신축 맨션에 관리업자 관리 방식을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규정함. 특히 관리업자가 관리자를 겸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상충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와 통장 및 인감의 엄격한 보관 체제에 관한 세부 지침을 강화한 점이 주요 디테일임. 이를 통해 관리비 횡령이나 불투명한 공사 수주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단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제시함
-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각 맨션 관리 조합과 관련 업계가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임. 또한 개정된 표준 위탁계약서와 관리 규약 작성 예시를 함께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독려할 계획임.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전문화된 맨션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PPP/PFI 지역플랫폼 협정제도의 협정처(제8차)를 결정 [4/3]

- 일본 국토교통성과 내각부는 지역관계자가 주체가 되는 민관협력사업(PPP/PFI)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PPP/PFI 지역플랫폼 협정제도'의 제8차 협정 대상지 3곳을 최종 선정함. 이 제도는 지역의 산업계, 공공기관, 학계, 금융계가 모여 관련 사업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민관 대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창설됨. 지역 맞춤형 인프라 정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자금과 창의력을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 이번 협정 체결의 주요 배경임
- PPP/PFI 지역플랫폼의 협정제도는 국토교통성이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한 활동 계획을 가진 지역 플랫폼을 선정하며, 선정된 플랫폼은 국토교통성으로부터 △ PPP/PFI 관련 법률, 재무, 기술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 △ 구체적인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관민 대화 (Market Sounding) 운영 노하우를 전수, △ 전국적인 성공 사례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고, 타 지역 플랫폼과의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을 받음
- 제1차에서는 20개, 제2차에서는 4개, 제3차에서는 2개, 제4차에서는 5개, 제6차에서는 4개, 제7차에서는 6개 플랫폼이 결정되었음
- 이번 제8차 공모는 올해 1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도쿄도 에도가와구, 카나가와현, 사가현을 대표로 하는 총 3개의 지역 플랫폼이 새롭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 이로써 전국의 협정 대상 플랫폼은 총 44개 단체로 확대되어 지역 중심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촘촘해짐. 국토교통성은 선정된 단체들이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사 파견과 기획 단계에서의 컨설팅 등 구체적인 지원 디테일을 제공할 예정임
- 정부는 내각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협정 플랫폼의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임. 특히 초기 구상 단계부터 민간의 제안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임. 이러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지역 자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모델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중남미 지역 인프라 해외 진출에 관한 관민연계플랫폼(PLACIDA) 제2회 협의회를 개최 [4/3]

- 일본 국토교통성은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중남미 지역 인프라 해외 진출을 위한 관민연계플랫폼(PLACIDA)' 제2회 협의회를 지난 3월 25일 개최함.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출범한 PLACIDA의 2025년도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자원 부국이자 거대 시장인 중남미 지역에서 일본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배경임
- 행사는 도쿄 미나토구 소재 ANA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카이 국토교통 부대신을 비롯해 외무성, 경제산업성 관계자와 중남미 6개국 주일 대사 등 약 120명이 참석함. 회의에서는 일본 기업의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성공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의 최신 니즈와 일본의 기술적 시즈를 매칭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짐. 특히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의 개발 계획을 소개하며 일본 기업과의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도모한 점이 주요 디테일임
-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과 기술 원조 방안을 구체화하여 민간의 진출 리스크를 줄여나갈 방침임. 또한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지 법령이나 입찰 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계획임. 이러한 관민 일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거대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양 지역 간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2026년도 선도적 관민연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4/8]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과 민간 활력 도입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도 선도적 관민연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과제 24건을 최종 선정했음.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라는 배경 속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모델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음
- 선도적인 관민연계 지원 사업은 ① 계획 및 방법이나 관민연계를 실시하는 대상 시설 등에 선도성, 시범성이 높을 것, ② 지자체의 노하우 축적 및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조사 진행 방식의 선도성, 시범성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선정함
- 관민연계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국토교통성이 해당 지자체에 사업방식검토, 관민연계사업 도입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정비를 위해 필요한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에게 조사위탁비를 보조하며, 건 당 2,000만 엔을 한도로 함
- 국토교통성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접수된 총 48건의 응모 과제 중 사업의 선도성과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을 선별하여 조사 위탁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 선정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속가능한 인프라 매니지먼트 실현 분야가 9건, 중 소규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스몰컨세션 추진 분야가 9건을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또한 정부의 'PPP/PFI 추진 액션플랜'에 발맞춘 전략적 과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 민관협력 모델 6건이 포함되어 지역 맞춤형 인프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 국토교통성은 이번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이 공공 영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선정된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이어갈 방침임. 민관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번 사업들은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사례로서 일본 전역의 지역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2026년도 스마트시티 실장화 지원사업의 선정 [4/10]

- 일본 국토교통성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스마트시티 실장화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총 9개 지구를 최종 선정하였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9년부터 Society 5.0 실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실장화 지원사업을 시작함. 초기에는 개념 검증(PoC) 중심의 시범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사회 구현(실장화)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화함
-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도시 공간에 스마트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실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문가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혁신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선별되었음
- 국토교통성은 선정된 지구들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시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
- 국가적 정책 테마에 부합하는 기술을 조기에 실전 배치하는 「전략적 스마트 시티 실장 타입」에는 ① 미야기현 센다이시(3,960만 엔), ②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4,050만 엔), ③ 오사카부 사카이시(3,515만 엔)의 3개 지구가 선정됨. 보조액의 상한은 5,000만 엔임
-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도시 서비스 실장 타입」에는 ①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2,015만 엔), ② 치바현 카시와시(3,150만 엔), ③ 도쿄도 미나토구(1,800만 엔), ④ 도쿄도 고토구(450만 엔), ⑤ 와카야마현 스사미쵸(960만 엔), ⑥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2,100만 엔)의 6개 지구가 선정됨. 보조액의 상한은 3,500만 엔임.

□ **건설공사 시공통계조사 (2024년도 확정) [4/14]**

- 2024년도에 건설공사 실적이 있던 건설업체는 385,392사로, 전년도 대비 1.5%가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국토교통성 대신허가업체는 9,530사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며, 도도부현 지사허가업체는 375,862사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음. 도도부현 지사허가업체는 개인이 47,329사로 작년대비 18.2%가 감소하였으며, 법인은 328,533사로 1.4%가 증가하였음
- 2024년 완성공사고는 154조 4953억 엔으로 전년대비 4.0%가 증가하였음. 원도급 완성공사고는 90조 7638억 엔으로 전년대비 0.9%가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완성공사고는 63조 7315억 엔으로 전년대비 8.8%가 증가하였음
- 2024년 원도급 완성공사고(90조 7638억 엔)는 민간발주공사가 66조 7243억 엔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음. 공공발주공사는 24조 395억 엔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음. 공사종류로 구분하면 토목공사는 23조 1444억 엔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으며, 건축공사는 57조 326억 엔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기계설치공사는 10조 5868억 엔으로 전년대비 6.7%감소하였음

□ **국토교통성, 공간정보와 AI 융합 위한 '지오AI 연구회' 제3회 회의 개최 [4/16]**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리공간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오AI 연구회' 제3회 회의를 오는 4월 20일 개최함
- 일본 국토교통성과 내각관방은 AI를 활용한 지형정보시스템(GIS)의 고도화를 위해 2026년 2월 9일 지오AI(GeoAI) 연구회를 공식 출범시킴. 이 연구회는 생성형 AI의 발전과 더불어 방대해진 지리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처리하여, AI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예측 및 제안 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연구회에는 국토교통성 정책총괄관과 내각관방 관계자를 비롯해 지리정보시스템 및 AI 분야의 학계 전문가, 산업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함. 이들은 산·학·관 협력을 통해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 속 지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향성을 논의함
- 이번 연구회는 현실 공간을 데이터화한 지리공간정보에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삶과 사회 시스템 전반의 공간적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음. 국토교통성과 내각관방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회의에서 지오AI의 실질적인 추진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할 계획임
- 회의에서는 사무국의 추진 현황 보고와 더불어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로부터의 심도 있는 히어링이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임. 특히 다양한 분야의 DX를 뒷받침하는 지리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관·학의 역량을 결집해 지오AI 도입 시의 과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회의 주요 자료와 의사 요지를 추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지오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이어갈 방침임. 인공지능과 위치정보의 융합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연구회가 일본 지오AI 전략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사업(SBIR 페이즈3 기금사업)에 관한 보조대상사업의 채택 결과에 대해 [4/17]**

- 일본 국토교통성은 스타트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사 분야의 행정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실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사업(SBIR 페이즈 3 기금사업)의 최종 채택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번 사업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교통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초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채택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서류 및 히어링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건의 과제가 선정되었음. 국토교통성은 이번 선정을 통해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내항 해운업계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혁신 기술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 채택된 사업 테마는 '데이터를 활용한 내항 선원의 업무 지원 및 노동 환경 개선 기술의 사회 실장을 위한 개발·실증'으로, 2건의 응모 과제 중 기술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높은 1개 사업이 낙점되었음. 해당 사업은 선박 운항 데이터와 최신 IT 기술을 결합하여 선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내 근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증 실험이 진행될 예정임
- 채택된 사업은 주식회사 SIM-SHIP이 제안한 「내항선 육상 서포트 기반의 고도화·종합운용 실증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교부금은 1.9억 엔임
- 국토교통성은 선정된 스타트업이 보유한 첨단 솔루션이 실제 해상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정책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음. 이번 사업은 해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해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됨